



## 청소년의 폭력과 가족관계 그리고 교회

6 김성은(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인간발달 및 가족학과 교수)

우리보다 먼저 아동과 청소년의 폭력문제를 다뤄 온 사구와 미국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는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랄 때 남을 괴롭히거나 폭력적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연구해 왔다. 연구들은 아이 개인의 특성, 가족의 특징, 그리고 친구 및 사회적 영향과 아이의 폭력 행사 가능성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이들은 가족의 특성-부모 역할 및 부모 자녀 관계-의 영향을 세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나는 이런 서구사회의 연구물들이 학교폭력의 해결이 내 아이의 보호 혹은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들은 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논의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가족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폭력을 행하지 않는 건강한 아이로 키워질 수 있을지를 포괄적으로 탐색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가족관계와 부모 노릇이 사회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부모들에게 좀 더 책임감 있고 사명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는 것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이 칼럼에서는 아이들의 폭력성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을 다루기보다는 주로 가족관계와 부모 노릇에 집중하여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에 앞서 먼저 간략하게 아동, 청소년과 청년들의 폭력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알아보고, 인간발달의 관점에서 한 개인의 폭력의 연속성을 알아볼 것이다. 세계 최초로 청년폭력(youth violence)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미국 질병통제국(Center for Disease Control)의 보고를 따르면 2000년도에 세계적으로 10~29세의 청소년과 청년 중 199,000이 살인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10~29세 청소년과 청년 중 하루에 565명이 폭력으로 살인 된 셈이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남미국가들에서 아동과 청년의 폭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커리비안의 국가, 러시아 및 남동부 유럽 국가의 순서로 폭력으로 말미암은 아동과 청년의 살인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폭력으로 말미암은 살인이 더 심각하고, 살인으로 이어지는 폭력이 아닌 폭력-신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칼이나 곤봉 등의 기구를 사용한 폭력-의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청소년과 청년 폭력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많은 요인 중 아동기의 공격성은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폭력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1,000명의 남성 중 26세에 폭력을 행사

했던 사람들은 이미 10살과 13세에 이미 심각한 공격성을 보였고, 핀란드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도 20세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청년의 1/3은 20~41세 사이에 또 폭력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에서 약 1,500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이 나이들이 7세, 10세, 13세 때에 공격성을 조사하였는데, 어릴 때 공격성을 보인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패거리로 몰려다니거나 강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이가 들어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런 연구들은 아동기에 공격적이고 폭력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남을 보이는데 이를 사회과학에서는 생애과정에서 지속하는 발달경로(life course persistent development pathway)라고 한다. 이런 연구들은 학교폭력의 예방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에 대해서 중재와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아이들은 부모와 관계가 긴밀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나누고, 부모로부터 건강한 학업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때 혹은 부모는 아이의 어려움을 겪을 때 찾아와서 대화할 수 있는 대상

### 공격성을 띠는데 영향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아이가 공격성을 띠는데 영향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특히 가족의 어떤 특성이 아이가 공격적이 되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가 되는 데 영향을 주고 어떤 특성이 그렇지 않은 아이가 되는 데 영향을 주는가? 사회과학에서는 아이가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가 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위험요인들(risk factors)이라 하고 아이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호요인들(protective factors)이라고 한다. 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 관련 보호요인으로 '아이들의 가족들과의 유대감', '아이들이 부모와 문제들을 논의하는 능력', '부모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신앙', '부모의 아이에 대한 건강한 학업의 기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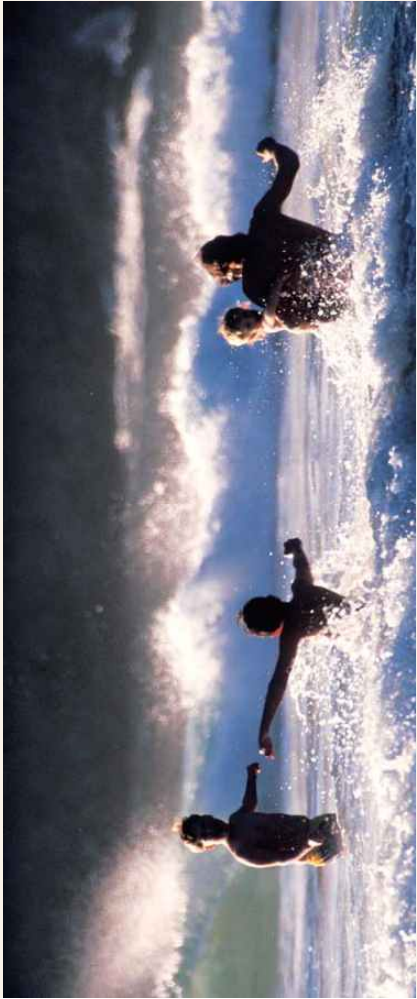
을 밝히고 있다. 즉, 아이들은 부모와 관계가 긴밀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나누고, 부모로부터 건강한 학업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때 혹은 부모는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찾아와서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될 때 아이는 폭력적이 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방식에는 일관적인 훈육과 질제를 기르라는 것 또한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가족관계와 가족의 어떤 특성이 아이들을 폭력적인 아이로 자라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가? 미국의 연구들을 따르면 권위주의적이고 혹독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자녀양육, 아이들과 부모의 낮은 애착 수준, 부모간의 높은 갈등, 부모의 자녀에 대한 낮은 관심, 혹은 자녀가 가정에서 폭력에 노출될 때 아이들의 폭력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선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우울증이 심하고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필요할 때 부모가 있어주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부모를 신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때도 있고, 또 우울하게 되거나 문제행동을 보인

다고 한다. 결국, 이런 연구들과 일화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특성 및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이 자녀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주고 있다.

### 사회과학의 연구 성과가 가족을 진정으로 돕는 도구가 되려면,

이런 사회과학의 연구 성과는 우리에게 좋은 가족 및 부모교육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에 기초를 마련해 준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에는 어떤 가치의 세계관을 가지고 부모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는 속제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 어려움을 겪는 자녀가 부



모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도움을 주고 조언을 줄 것인가? 부모와 자녀가 신뢰하고 지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길은 무엇일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 무엇을 하면서 보낼 것인가?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특히 아이들이 열 살 정도가 되어 청소년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부모보다 친구들과 대화하기를 선호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게 될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미국의 부모교육과 부모교육은 대부분이 좋은 가족관계를 형성성을 위해 다양한 기술(skills) - 의사소통기술, 상대방의 말에 잘 귀 기울이는 기술, 갈등을 잘 해결하는 기술 등 - 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유용성에도 효과 및 효과의 지속성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가자별로 효과에 대한 검증 자체도 모두 이뤄지지 않아서 시간적인 제약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갖는 부모들에게 기존의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이런 프로그램은 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기에 가족에게 어려움이나 시련이 오거나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습득했던 기술들은 회귀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시구의 폭력과 가족프로그램 관리는 그 유용성에



김성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브랜디윈 캠퍼스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Brandywine)의 인간발달 및 가족학과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가족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롭게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가족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고, 부모관계, 남성과 아버지, 다문화 가족, 질적연구방법론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서 어느 정도 입증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방향성과 가치에는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면서 부모와 가족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남긴다. 인간의 행위와 마음의 변화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사회과학에 기반을 둔 연구 결과들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을 때만이 프로그램은 가족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폭력적인 아이로 클 가능성을 줄이고 우리 아이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은 결국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폭력과 관련된 사회과학의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용됐을 때만이 부모와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나아가 세상의 프로그램들이 헤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가 해낼 수 있게 되고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더 적극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부모를 교육하고 가정과 사회를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그 노력을 써야 할 것이다. 강력한 사회와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알리스터 맥그래스 저 | 박세영 역 | 옮김 | IVP 퍼블리싱

## 과학신학

유정철/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왜 이제야 소개되었을까?

『도킨스의 신(Dawkins' God, 부제: 리처드 도킨스 뒤집기)』과 『도킨스의 망상 (Dawkins Delusion 부제: 민들어진 신이 외면한 진리)』로 진숙한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저서 『과학신학, The Science of God』이 지난 연말 IVP를 통해 번역 출간되었다.

원서의 출간일이 2004년 6월 21일이나, 2004년 12월 6일에 출간된 『도킨스의 신』이나 2007년 5월 25일에 출간된 『도킨스의 망상』보다 먼저 출간되었다. 그런데 왜 도킨스의 신,이나 『도킨스의 망상』보다 늦게 이제야 소개되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내가 기독교대학 재플이나 기독교 동아리 그리고 각종 기독교인 모임 등에서 강의할 때 『도킨스의 신』이나 『도킨스의 망상』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했지만 『과학신학』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생각된다. 『도킨스의 신』이나 『도킨스의 망상』은 현재 많은 젊은 지식인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해악을 끼쳐온 리처드 도킨스에 대해 공격하는 형식을 빌려 과학과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공격의 대상이 명확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쓰였다. 반면, 『과학신학』은 과학과 신앙의 문제를 역사적, 철학적, 신학적 논의를 통해 접근하는 형식을 취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다소 어렵다.

### 내 지역 속 알리스터 맥그래스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이름을 차를 읽한 것은 영국 유학 시절인 1991년 무렵이다. 그때 나는 옥스퍼드대학 동물학과에서 행동생태학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그동안 연구해 오던 생태학을 그만두고 신학을 전공하려고 몇 분들에게 자문을 하고 있었다.

한 번은 옥스퍼드 위클리프 신학교(Wycliff Hall) 모임에 참석했다가 당시 학장님으로 계셨던 Dr. R. T. France 교수님과 나의 진로를 바꾸는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었다. 그때 Dr. France 교수님은 나에게 자신의 위클리프신학교에 알리스터 맥그래스 교수가 계시는데 그도 옥스퍼드대학에서 생물학학을 전공하고 신학으로 전공을 바꾸어 성공한 분이라고 한 번 만나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때 잠시 영국을 방문했던 영동포교회 방지일 원로목사님과 장춘단교회 홍순우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으로 진로를 바꾸지 않고 계속 행동생태학을 공부하기로 하면서 그와 만나진 못했다. 그 후 나는 그의 책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그의 과학신학의 세계를 접할 수 있었다. 특히 그가 내가 속해 있던 옥스퍼드 동물학과 리처드 도킨스 교수의 책들을 반박하는 책들을 내면서 그에게 더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의 서평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즐거움이었다.